

담양 '제5회 예쁜 정원 콘테스트' 개최

내달 10일까지 모집...군수 표창·현판 수여

담양군이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활성화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제5회 담양군 예쁜 정원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2020년 제1회 예쁜 정원 콘테스트 이후로 꾸준히 대회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제4회 수상작 이래등산, 엄마의 정원은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군민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며 담양 군민의 정원에 관한 애정과 관심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콘테스트는 개인주택이나 카페, 음식점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해 가꾸고 있는 개인과 근린 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5

월 10일까지 정원의 특징과 사진을 포함한 참가신청서를 해당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단의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2개소), 장려상(2개소)으로 총 5개소에 군수 표창 및 현판이 수여되며,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 담양 대표 예쁜 정원으로 참가할 기회가 부여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인문학과 원림의 문화도시인 담양군은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사업 등 다양한 정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콘테스트에 정원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양=강성국 기자

늦어지는 결혼 출산... 나주, 난임 정책 지원 대폭 확대

난자 냉동 시술 첫 지원... 보조생식술·한방치료 등 고연령 여성 가임력 보존... 저출생 극복 선도 앞장

나주시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나주시는 4월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만혼(晩婚)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시술' 지원을 시범 사업으로 처음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가임력' 저하가 심화하기 전에 난자 냉동 지원 등을 통해 늦은

나이에 결혼 또는 혼인을 앞둔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항목은 난자 채취비, 동결비 등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1회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나주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40대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난소기능검사(AMH) 1.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난소기능 저하(AMH 1.0미만)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대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는 난임 여부와 관계없이 가

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도 4월부터 회당 최대 100만원씩 총 2회까지 지원한다.

앞서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는 '나주형 난임시술비'와 난임 조기진단,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난임 검진비' 지원 시책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난임진단 검진비는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검사 비용을 부부 합산

최대 3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여기에 난임 시술비는 횟수 제한 없이 회당 최대 20만~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지질환 없이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는 부부의 체질을 개선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 4개월분을 지원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지원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해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허필수 기자

함평,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

함평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함평군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1억 4580만 원이며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노후 방지사설의 개선 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비의 90%를 지원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사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사설은 제외한다.

특히, 군은 지난 2022.5.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됨에 따라 이를 부착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접수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금)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함평군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함평=김용희 기자

장성 "방치됐던 폐교, 주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북하면 약수중학교에 '오감약수터' 조성



6년 전 폐교됐던 장성군 북하면 약수중학교가 마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16일 군에 따르면, 2018년 폐교한 약수중학교에 지역민을 위한 공유공간 '오감약수터'가 조성되어 최근 개

소식을 가졌다. 약수리에 자리잡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주관하고 북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협력해 추진한 '폐교 활용 정책사업'을 통해 잔디식재, 족구장 설치, 옥외화장실 개선 등 기반공사를 시행했으며 사업비는 총 3억 원이 투입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반백 년 가까이 마을의 정서적 중심지로 기능해 온 약수중학교가 주민 행복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며 "북하면에 한층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하면은 오감약수터 개소식 이후 면소재지 인근 도로변의 쓰레기를 줍는 등 1시간 가량 봄맞이 대청소 시간을 가졌다.

/장성=심재식 기자

영광군, 제63회 전남체전 도로 이용 경기종목 교통통제

영광군은 제 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원만한 경기 진행을 위해 마라톤과 자전거 등 도로를 이용하는 종목에 대해 일부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는 구간은 범성포 매표지(카페 드림앞) 앞에서 출발하여 국도 22호선을 통해 스포터움 종합운동장까지 10km 단축마라톤으로 진행되며 4월 20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방향(범성포 → 광주 방면) 전체가 통제된다.

자전거 경기는 대마면 제보모빌리티 앞 교차로에서 대마모량 분기점까지 진행되며 4월 18일 9시 30분부터 14시까지 진행방향 2차로가 통제된다. /영광=서중현 기자

2024대한민국명예축제 선정

대숲처럼, 초록처럼
대나무 천국, 여기는 담양!

제23회
담양 대나무 축제
2024. 5.11.토 ~ 5.15.수 (5일간)
죽녹원 외 야외무대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화순, 11~18세 모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매비 지원

연 최대 14만 4000원 지급... 오는 29일부터 상반기 신청

화순군은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2000원의 위생용품 구매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상반기 접수를 오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특히 올해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이용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으로 18세까지 연속 지원이 가능한 자동충전 바우처카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매해 신청·접수를 해야 하고, 분실 시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반기 한 번 신청으로 하반기 지원 금액이 자동 생성되며, 올해 12월 13일까지 미사용 시는 자동으로 소멸이 된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대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과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정해 화순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과 함께 적극 홍보를 강화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수혜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바우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여성청소년들이 최대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개선이 아동친화도시인 화순군의 사회적 배려와 포용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순=주영현 기자

담양, 담빛수영장 재단장 군민 건강·힐링 공간 제공

담양군이 군민에게 다양한 운동과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담빛수영장을 개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담양군은 먼저 수영장 활성화를 위해 수영장 관련 전문체육인(센터장)을 채용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강습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별 강습반을 확대 및 운영시간을 연장했다.

또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영장 수질정화 시간과 횡수를 단축했으며, 앞으로 생존수영 교실,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반 개설, 수영대회 개최, 친절 우수직원 선발 등 다방면의 개선을 통해 군민의 사랑을 받는 체육 시설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병노 군수는 "새롭게 단장한 담빛수영장을 통해 앞으로 많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 넘치고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빛수영장은 2018년 8월에 개장해 성인들이 유아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을 갖춰 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장흥, 자원봉사자 활약으로 빛난 마라톤대회 140명 자원봉사자, 선수 안전·행사지원 '구슬땀'



장흥군은 지난 14일 열린 제18회 정남진 장흥전국마라톤대회에서 14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대회 지원에 나섰다.

장흥군 여성단체 회원 및 라이온스 클럽회원들은 선수들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하고 귀중품, 기념품을 보관하고 배부하는 등 대회 행사지원 전반에 도움을 주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주차장 주변 차량 통제와 배급소에 배치되어 선수 안전을 책임졌다.

학생,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입상자들을 확인하여 메달을 제공하고 행정상 지원을 도왔다.

대회를 마친 후에는 '플로깅'을 통해 대회장 환경 정화에 나섰다.

조선희공대 스포츠재활학부에서는 '스포츠테이핑'을 통해 선수들의 부상 예방을 위해 의료지원을 나섰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장흥 마라톤대회가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며 "웃는 얼굴로 선수들을 맞아 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